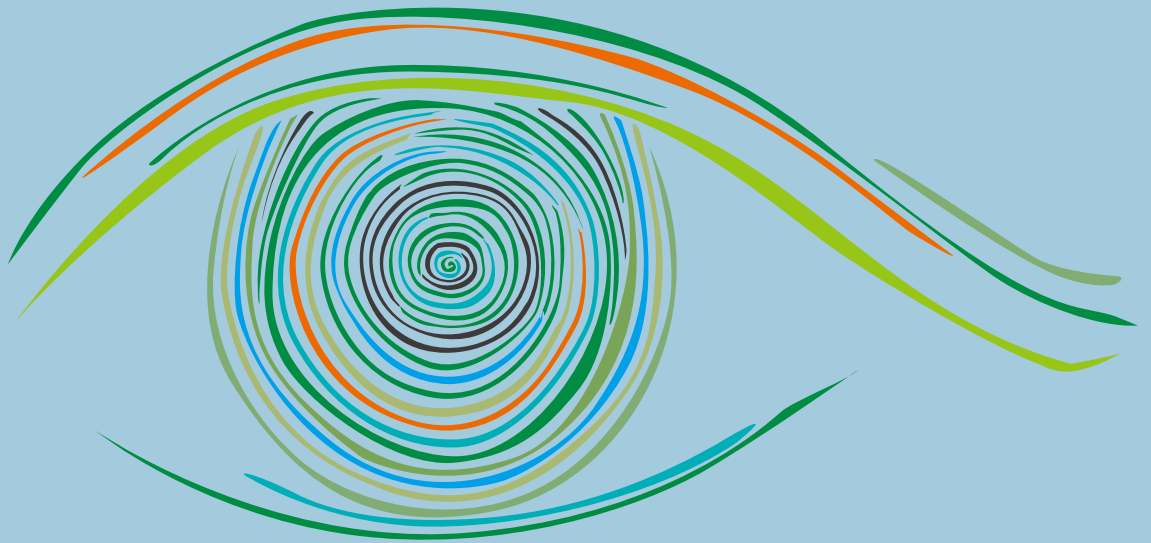


세플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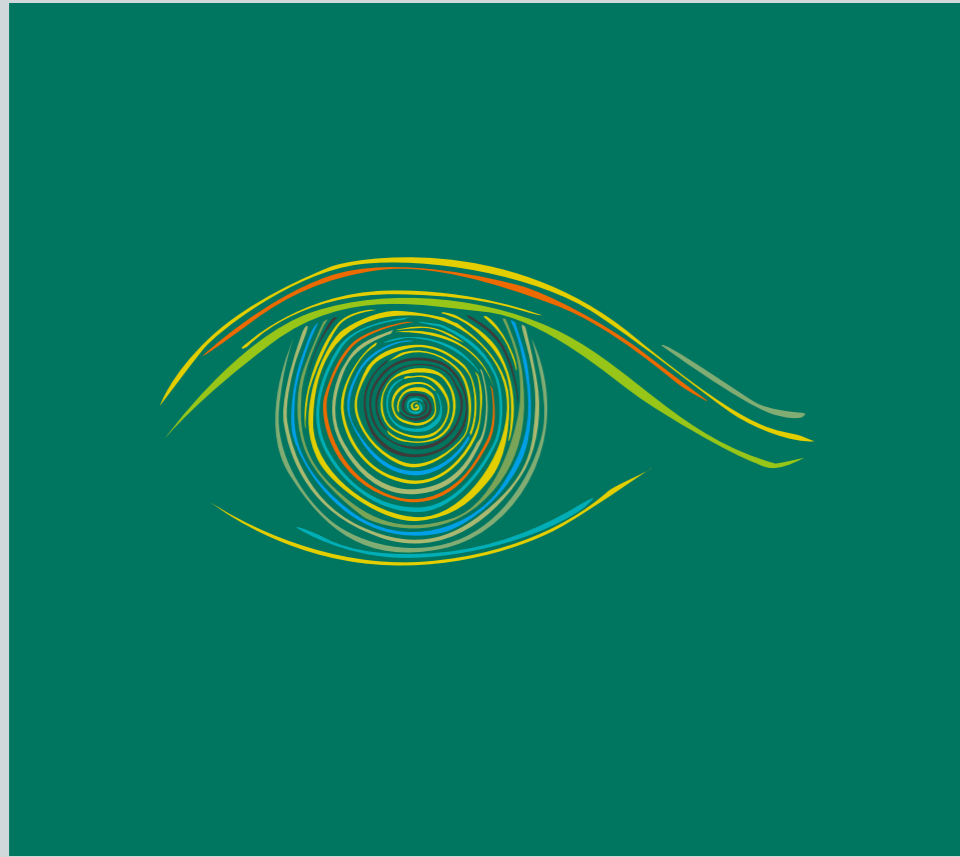
Vol. 65 / Summer 2021



EYE

SCHAEFFLER

#OpenYour'EYE'



Changwon

우리는 각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목구비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어우러집니다. 이목구비는 자신만의 정체성이자 소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세상과 잘 소통하기 위해, <세플러+원>은 1년 동안 '이목구비'를 주제로 각 사업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봄호에서는 '귀'를 테마로 서울사무소를, 여름호에서는 '눈'을 테마로 창원공장과 창원연구소, 가을호에서는 '입'을 테마로 안산을, 겨울호에서는 '코'를 테마로 전주를 찾아가입니다. 흥미롭고 따뜻한 세플러 가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 <세플러+원> 인터뷰 코너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세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플러+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일 2021년 7월 15일(통권 제 65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발행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기획·디자인 퍼플페이지(대표전화 02.6674.0111)

Contents



- 6 **Theme Outside**
더 넓고 선명한 세상과 마주하기
- 10 **창립기념사**
- 14 **Theme Inside**
눈을 즐겁게 하는, 당신의 열정
- 18 **Theme Graphic**
잉크 반점 테스트로 알아보는 나, 나는 어떤 사람일까?



- 22 **Plus Info**
마음으로 보는 눈의 언어들
- 24 **특별한 하루**
눈이 내려요!
- 28 **추억의 재구성**
오늘도 벨트를 조이며
- 32 **반짝반짝 빛나는**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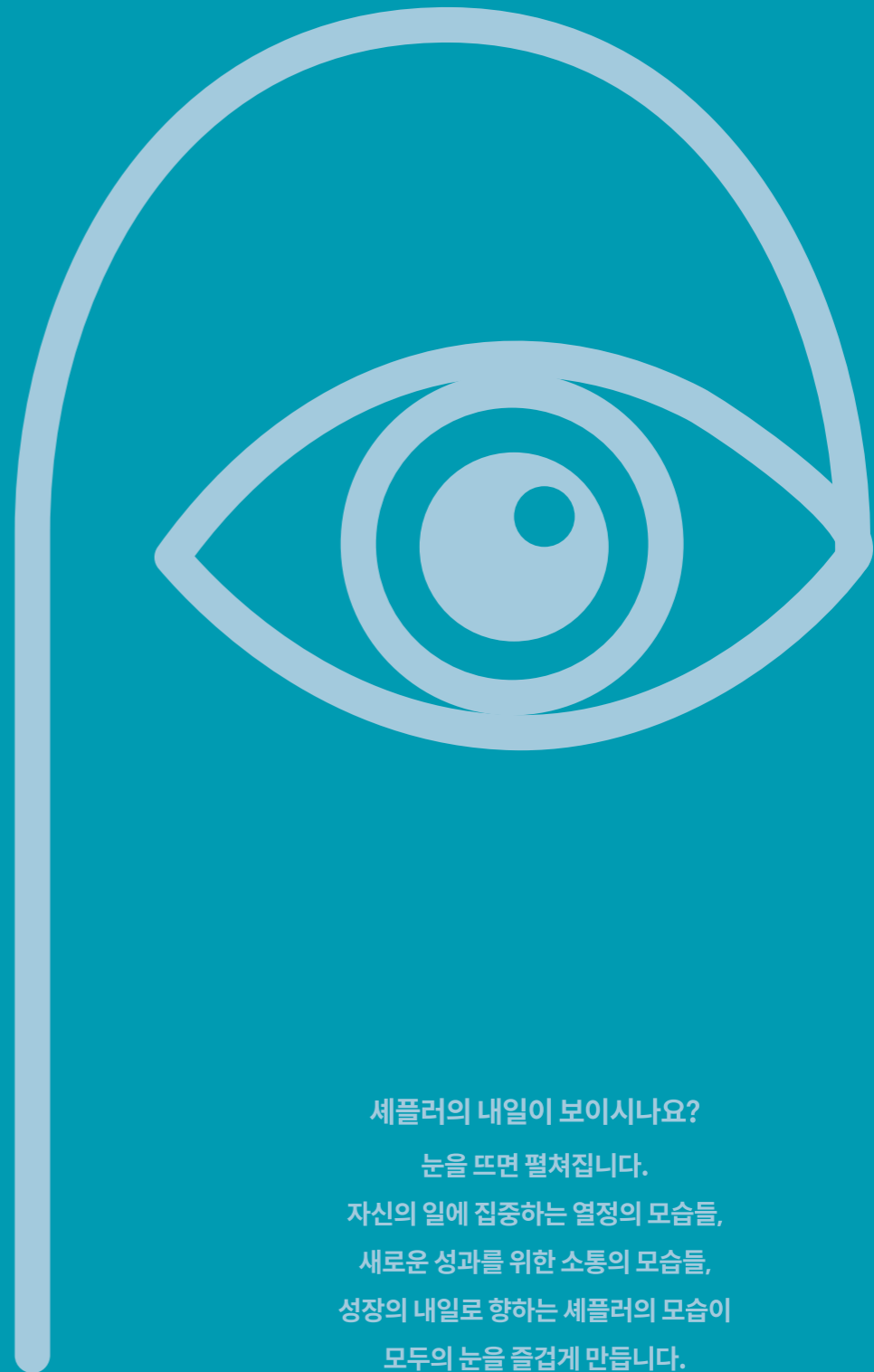
- 38 **요즘 취향**
영상, 어떤 앱으로 보세요?
- 42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보고서, 이렇게 쓰세요!
- 44 **나를 채우는 여행**
즉흥적으로, 세부로



- 48 **세플러 공모전**
말풍선에 담긴 상상력
- 52 **Headline**
- 55 **Thanks & Quiz**



Theme Info



세플러의 내일이 보이시나요?
눈을 뜨면 펼쳐집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열정의 모습들,
새로운 성과를 위한 소통의 모습들,
성장의 내일로 향하는 세플러의 모습이
모두의 눈을 즐겁게 만듭니다.

더 넓고 선명한 세상과 마주하기

자신만의 좁고 흐린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고 선명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후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배움으로 또렷하게

누구든 스마트폰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간혹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명하게 나와야 할 대상이 흐릿하고, 주변이 선명한 경우가 있다.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카메라 앱을 켜 상태에서 화면 속 촬영 대상을 터치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기에, 의도와 다른 사진이 찍힐 수 있다. 초점 기능을 활용하면 대상만 선명하고 주변은 물감 번지듯이 나오는 이른바 '감성 사진(아웃포커싱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배움도 마찬가지다. 초점 잡는 법을 알면 찍고자 하는 대상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듯, 많이 배우면 세상을 한층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은 곳을 함께 여행하더라도, 보는 풍경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역사가의 눈에는 유적이지만 보일 것이고, 요리사는 음식을 중심으로 돌아다닐 것이다. 역사가가 요리사에게 유적지에 대해 설명하면 할수록 요리사는 유적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며, 요리사가 역사가에게 음식의 조리법과 맛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역사가의 미각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배움은 세상을 더욱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초점을 맞추면 대상을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흔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격언이다. 배움을 즐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선명해진다.

포용으로 더욱 넓게

배움과 배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르다. 지식과 정보는 책, 영화, TV, 강연 등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것들에 존재한다. 심지어 거지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배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 즉 포용은 전적으로 각자의 마음가짐과 의지에 달려 있다.

누구나 인정하는 올바른 지식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불의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진리처럼 여기게 된다.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러한 잘못을 범할 여지가 커지며, 이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자. 과거에는 기성세대를 꼰대라는 말로 비아냥거렸지만, 요즘은 다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신만의 생각과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주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지칭한다. 결국 꼰대는 포용력 없는 사람의 다른 표현인 것. 이러한 행태는 오늘날처럼 다양성과 유기적인 융합, 평생 배움을 지향하는 시대에 특히 치명적인 약재다. 그러니 편협 대신 포용을 선택하고 실천하자.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사고로 깊이 있게

똑같은 내용을 공부한 A와 B가 있다. A는 내용을 물어보면 자신 있게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 나가는 반면, B는 주눅거리며 말을 더듬는다. 이러한 갈림길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고(思考)', 즉 배운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궁리하는 과정이다. A는 배운 내용을 되새겼을 가능성이 높고, B는 배움으로만 그쳤을 확률이 높다. 배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마무리 지으니 당연히 깊이도, 자신감도 없을 수밖에 없다.

공자는 배움과 생각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부를 함에 있어 생각 없이 배우기만 하면 그 끝이 허망해진다." 이러한 관계성은 '학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학습은 '배울 학(學)'에 '익힐 습(習)'을 더해 완성된 단어다. 다시 말해, 배우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배우고 익혀야' 진정한 배움이다.

익힘의 첫 단계는 '배운 지식과 정보에 대해 충분히 고심하고 나름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배움에 자신감과 깊이를 더하며, 이는 곧 적극적인 실행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배우고 포용한 것들을 치열한 사고로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눈빛에 깊이와 자신감이 깃든다.

애정으로 풍요롭게

지금까지 배움과 포용,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공들여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다. 바로 '애정'이다.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널리 품고, 깊이 생각해도 나와 나의 일, 주변과 세상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언젠가는 퇴색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애정을 갖고 임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능률과 지속성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던가.

세상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의미와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 나의 일이 세상과 주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생각해 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러한 작은 노력과 변화만으로도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저절로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 애정이 생기면 더 아끼게 되고, 더 빠져들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며, 더 오래가게 된다. 그 결과로 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일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애정을 쏟게 된다. '애정 어린 시선'이 엮어 낸 작지만 놀라운 기적이다.



세상을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계는
한없이 좁아질 수도,
더없이 넓어질 수도 있다.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 준 임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여러분

지속적인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자와 장기근속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본 행사에 참석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전된 기술 덕분에 함께 창립기념식을 진행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혀 없는 범세계적인 전염병의 위협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종업원의 안전과 비즈니스의 확대, 수익성 강화, 재고 개선, 그리고 여러 방역 활동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한뜻으로 노력해 준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3년 기계산업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세워진 우리 회사는, '사업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라는 사업보국(事業報國)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을 이어왔고, 현재는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Pioneer, 개척자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68년 전 누구도 가지 않은 길 위에서 혁신적인 미래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의 역사는 국가 경제의 기틀이 되고 모두의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첫걸음을 내디뎠던 초심으로 도전하고 개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제품과 기술,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끝없는 도전이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기업, 세플러코리아의 내일을 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수에즈 운하 사고,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자동차 생산 라인의 중단 등과 같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도전은 곧 우리가 스스로의 역량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 상황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어려움을 함께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태동시킨 개척자 정신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오늘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 힘은 미래에 우리가 성공 고지에 먼저 도착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시킨 정치·경제·산업 및 사회·문화 등 우리 삶 전반적인 변화로 New Normal과 Business Transformation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올해 초, 'Korea Value Creation'을 새로운 아젠다로 하여 향후 3년간 격동하는 미래를 선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orea Value Creation'란 불가피하게 축소된 비즈니스 규모에 대응하고, 극적으로 단축된 미래 지향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가치 지향적인 집중을 통해 비즈니스 전환기에 있어서 강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는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Production Right Sizing' 프로젝트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래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하고,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베어링 생산기지의 재구조화 동시에 자동차 전동화 부품 및 초정밀 베어링 생산뿐 아니라 로보틱스와 인더스트리 4.0이 가능한 혁신적인 기반을 이뤄낼 것입니다. 이는 30여 년 전, 부평공장을 창원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던, 그 변혁에 견줄 수 있는 커다란 내적·외형적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 여러분 모두 도전과 실행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창립기념사를 마치고, 장기근속 및 모범사원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세플러코리아 구성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특히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이병찬



세플러코리아 68주년 창립기념일

6월 1일 세플러코리아 광화문 본사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행사에서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첫째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플러코리아, 창립 68주년 맞아 지속가능한 '로드맵 2025' 전략 제시

6월 1일 세플러코리아가 창립 68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로드맵 2025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찬 대표의 '창립기념사 낭독', 세플러그룹의 새로운 전략 '로드맵2025' 발표, 장기 근속자 및 모범 사원 표창 등의 순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병찬 대표는 창립기념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 세플러그룹의 전략 '로드맵2025'와 핵심 사업 부문의 5대 집중 과제를 제시했다. 자동차·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 부문은 CO₂ 저감 드라이브 및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새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도하고, 인더스트리얼 부문은 로보틱스 시장을 타깃으로 산업기계용 기계 및 장비 개발을 추진해 나가며, 재생에너지 파트너로서 풍력태양광의 베어링솔루션 등 포트폴리오 확대를 꾀하고, 데이터 기반의 자동차 애프터 마켓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세플러코리아는 매년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와 모범 사원을 표창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279명에게 수상했다. 30년(93명), 20년(27명), 10년(127명) 근속사원에게 표창했으며, 모범

사원에게는 사장상(19명), 공장장상(13명)이 전달됐다. 이병찬 대표도 30년 근속으로 장기근속상을 수상했다. 이병찬 대표는 "지난 60여 년간 세플러코리아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혁신성, 민첩성, 효율성을 기반으로 '로드맵 2025' 전략 달성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플러 코리아 장기근속상 수상 명단 2021



송영석	생산계획 볼베어링 MU	김성민	중부 직납영업	최종홍	Customer Service Industrial 2
이동희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영업	권창오	창원물류	김종익	품질보증 전주
김인근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송태현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유 윤	치공구서비스 테이퍼베어링 MU
김홍균	프로토타입 센터	이현준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장수	설비보전 창원 1
이은상	설비보전 창원 1	이상수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정용호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김기환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유성철	설비보전 전주	류영철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허진호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한기봉	볼베어링 세그먼트	이광주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소병일	활베어링 세그먼트	이병찬	세플러코리아	이용민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태우진	볼베어링 세그먼트	정신남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재수	툴센터
김용남	설비보전 전주	이동택	설비보전 전주	김홍준	품질 창원 품질보증
박태용	단조 세그먼트	문해욱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오상광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진방식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김세환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근교	선삭 세그먼트
성기환	선삭 세그먼트	김영복	선삭 세그먼트	김동식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김동호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박창서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황준진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양종술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한우진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안상연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강명호	선삭 세그먼트	조동윤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최영호	단조 세그먼트
박준수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이덕재	선삭 세그먼트	김준호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유상두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조원희	선삭 세그먼트	박상호	시공평가
박석혁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최봉수	시공영업	주혜숙	연구기획
안덕원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오규상	HR 창원 (노동조합)	강대봉	설비보전 창원
이창무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김태환	Channel Management	김영대	생산계획 볼베어링 MU
김진식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조중선	설비보전 전주	김은중	툴센터
김동영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유연철	품질보증 전주	한정열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백승호	볼베어링 MU	이종덕	볼베어링 세그먼트	정중수	선삭 세그먼트
김동도	공정기술 창원	신민호	설비보전 전주	장성주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왕영정	Customer Service & Material Management	신관용	Masterplanning JJ	최 종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이강식	품질 창원	백남승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강수	설비보전 창원
이법진	HR 전주	백봉진	선삭 세그먼트	김영환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최배근	남부 직납영업	류해민	품질 창원	김창경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이기현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영업 국내영업	서상문	재료기술	황선욱	단조 세그먼트
김태용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정인주	단조 세그먼트	이항진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유광현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이상수	치공구서비스 볼베어링 MU
신승수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동호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이상욱	단조 세그먼트
박은준	설비보전 창원 1
박성환	품질 창원 품질보증
강석환	설비보전 전주
이용태	활베어링 세그먼트
양영민	볼베어링 세그먼트
이기수	공정기술 안산
신동근	엔진부품 세그먼트
문재현	볼베어링 설계
이현직	엔진 컴포넌트 BU 영업
김한규	BU 새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박성호	Industrial 사립기획
김효성	Leadership, Recruitment & Talent Mgmt.
임용범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한태연	볼베어링 설계



조정훈	공정기술 안산	이준백	공정기술 안산	김선진	설비보전 안산
채선병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박찬원	품질시스템	허인우	엔진 시스템 연구소
박진영	시공평가	노경락	중부 직납영업	고관남	회계
이선종	Customer Service Industrial	조재원	설비보전 창원 2	조규석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이동하	BU 새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박현석	치공구서비스 테이퍼베어링 MU	김소출	툴센터
김수현	Strategic Planning & Export Sales	남궁일	설비보전 창원	박재환	툴센터
박지열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박윤호	시공영업	최봉기	설비보전 창원 2
정희용	엔진부품 세그먼트	하준호	HR 안산	백영근	툴센터
김후진	품질보증 안산	박정오	Industrial 세그먼트	송경수	프로토타입 센터



강영구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이영찬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곽성철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한수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성기환	선삭 세그먼트
성우진	설비보전 창원 2
김진민	Masterplanning 창원
구자현	활베어링 세그먼트
이동기	볼베어링 세그먼트
안귀운	치공구서비스 전주
임병환	품질보증 전주
변진영	공정기술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상종	설비보전 안산



신동기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김태현	엔진 컴포넌트 BU 엔지니어링	이규수	공정기술 안산
백창욱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백정훈	공정기술 볼베어링 세그먼트	송동혁	공정기술 안산
이동혁	설비 조립	고민재	품질보증 전주	박주상	품질보증 안산
유정민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양재훈	기계 설계	이재홍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강우혁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황산해	재료기술	홍우길	품질 창원 품질보증
이항상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박성원	폴리머 & 윤활기술	한동기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백중현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서민우	RPA & 벤치마킹	이동기	안성물류
손홍락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한정규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영업 국내영업	이겨레	Application Engineering
김동욱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정훈	NPM	이상성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동휘	엔진부품 세그먼트	최진성	설비보전 창원	이호영	엔진부품 세그먼트
차대현	엔진부품 세그먼트	이선호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승민	엔진부품 세그먼트
홍대근	엔진부품 세그먼트	한유중	품질 창원	박기연	공정기술 안산
김태용	엔진부품 세그먼트	이발주	안성물류	정병화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지모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임대현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박명식	설비보전 창원 1
김성욱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김철호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원창호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강 석	설비보전 전주	박현일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한동재	활베어링 세그먼트
김대기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정훈	설비보전 창원 2	황재준	활베어링 세그먼트
이대윤	치공구서비스 전주	임종철	설비보전 창원 2	나유신	활베어링 세그먼트
문성우	치공구서비스 베어링부품 MU	김류름	설비보전 창원 1	이학희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박종구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성진	Industry 4.0	안병희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권영만	Customer Service 창원	왕희성	Customer Service 안산	심상현	선삭 세그먼트
배수웅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서병민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규현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철호	활베어링 세그먼트	오원균	치공구서비스 전주	박광성	엔진부품 세그먼트
윤대식	공정기술 창원 PMO	손지영	볼베어링 세그먼트	이동규	품질보증 안산
이정환	설비보전 안산	방성규	설비보전 전주	김현욱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용수	BU 새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노 일	활베어링 세그먼트	김영환	설비보전 안산
서상민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신강호	볼베어링 세그먼트	박지열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품질
허건수	HR 창원	김상균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진호	설비보전 창원 1
성순현	Dev. Prod. Methods Heat Treatment AP	김성규	엔진부품 세그먼트	최재선	볼베어링 세그먼트
심정환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송인복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정수	활베어링 세그먼트
차용남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임병선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경진	활베어링 세그먼트
박진혁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유선호	설비보전 안산	황용만	설비보전 창원 2
조영재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최재규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현수	사립관리 안산공정
김수철	설비보전 창원 2	배성현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이영일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김태우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이상훈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품질	오세권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조상훈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태연	Smart Factory Team (SAC)	김대현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상수	Auto. Tech. Engineering & E-Mobility	박복수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이상재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임재민	품질 창원 Customer Service	이정윤	품질보증 전주	장팔철	Production Logistics AP
신동철	안성물류	정윤철	남부 직납영업	박진철	공정기술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신승수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도현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박현성	Asia Pacific Finance
박상내	설비보전 창원 2	장영일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김상민	사립관리
선민수	Dev. Overall Processes AP	김태현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송성호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동식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함께하는 동료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질 때
눈이 즐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정호 이사
창원연구소 소장

눈을 즐겁게 하는, 당신의 열정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열정과 함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는 창원연구소 도정호 소장을 만났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창원연구소 소장 도정호라고 합니다. 1998년에
입사했어요. 오랜 시간 트랜스미션 시스템 사업부에서 신제품
개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2016년에 독일 파견 근무를 가서
3년 후 돌아왔고, 작년까지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장을
맡다가 올해부터 연구소장을 맡게 되었네요.

이번 테마가 ‘눈을 즐겁게’입니다.
직장 생활 중 ‘눈이 즐거울’ 때가 궁금하네요.

함께하는 동료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질 때 눈이 즐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삶이나
일에 대한 태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직원의 눈빛과 “저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직원의 눈빛은 다르거든요. 열정의 차이라고 봐요.
자신의 삶과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일 때 제
눈은 즐거워진답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열정과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회사는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성과
못지 않게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소의
경우엔 최선을 다해 일을 추진했음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직원들의 열정이 변치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좋은 성과를 위해선 열정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해요. 다른 업무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연구소에서는 문제를 들여다보는 유연한 사고가 중요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접할 때 기존과는 다른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과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와 다양한 시각, 특히 중요한 것 같네요.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를 다뤄요.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료 연구,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기에 서로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관점보다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효율적일 때가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상황을 넓게 보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위한 회의, 때론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회의란 딱딱한 분위기에서 뭔가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의 고충이나 개선점 등을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독일 파견 근무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 제 매니저가 저보다 10살이나 어렸고, 입사도 저보다 10년이나 늦었어요.

제가 어려울 듯도 한데, 매니저는 2주에 1번씩 면담을 진행하더라고요. 힘든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요.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저 또한 그런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직원분들이 어떤 눈으로 회사를 바라보고 있으며,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러니 직원분들이 저와의 만남에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계획이 궁금합니다.

변화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전기차 등 저희가 속한 비즈니스 환경은 무척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어떨 땐 고객이 저희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저희는 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조직 문화부터 혁신할 계획입니다. 기존 비즈니스가 안정된 궤도에 올라섰다면, 연구소가 할 일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혁신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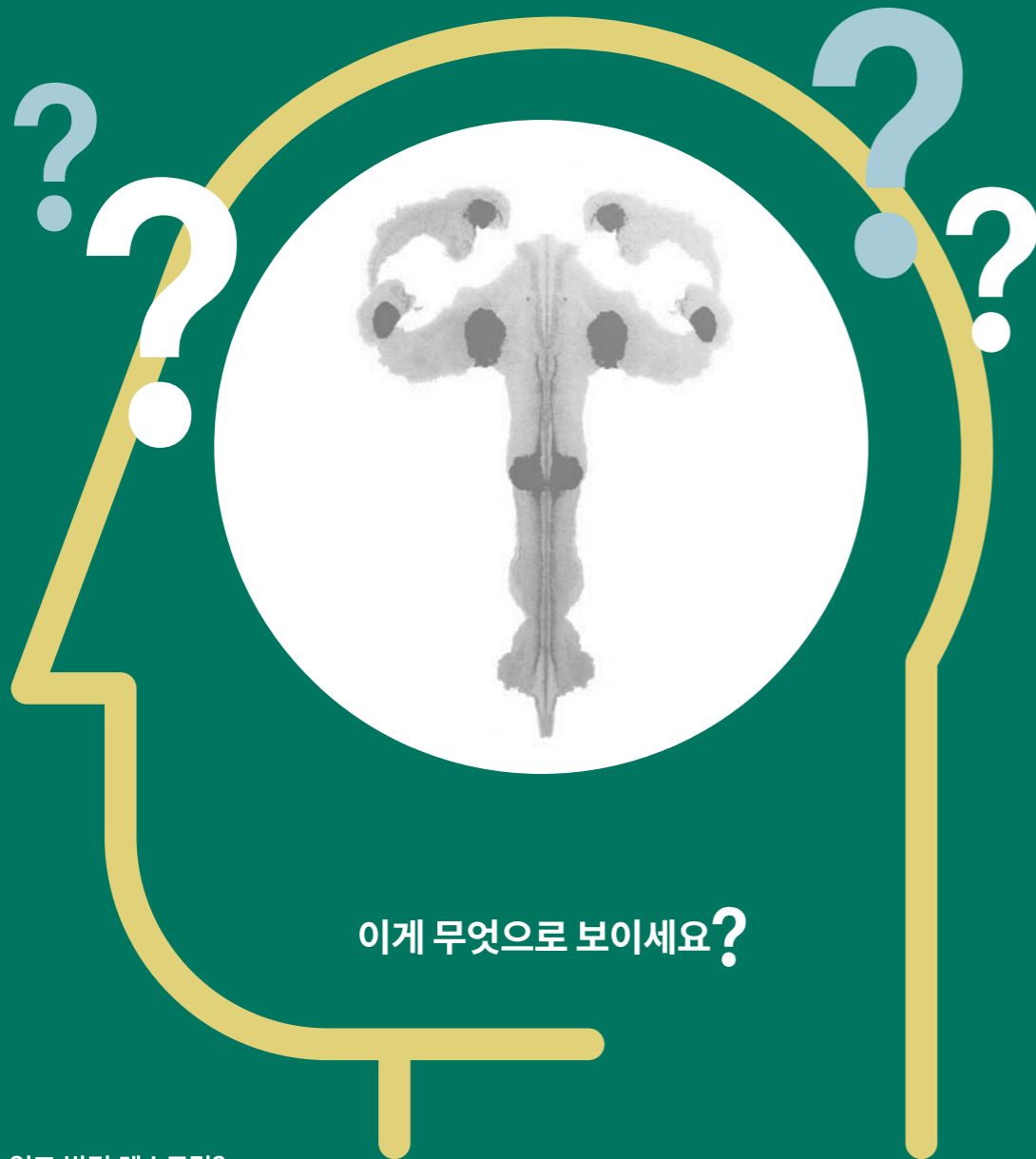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더 넓고 유연한 시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 사람의 시각에서 헤아려보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지금보다 새롭고 가치있는, 그야말로 ‘눈이 즐거운’ 세상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습관처럼 해오던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후회는 대부분 해보지 않은 것에서 오기 마련이라고 했어요. 변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새로운 눈을 가진 세플러코리아인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잉크 반점 테스트로 알아보는 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게 무엇으로 보이세요?

잉크 반점 테스트란?

좌우 대칭의 불규칙한 잉크 반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기준으로 정서적 성향이나 무의식적 욕망 등을 가늠해 보는 테스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포함한 많은 예술가들이 추상적 잉크 반점이 그림 테스트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고, 심리학자 헤르만 로르샤흐를 통해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 방법 중 하나로 체계화되었다.

참고 : <고전에서 현대까지 심리검사의 모든 것 사이코북>



근육을 수축하고 있는 강한 남성
강한 남성을 보는 당신은, 강력한 능력자!

당신은 유능합니다. 뛰어난 운동 선수처럼 열심히 도전하고 성과를 이룹니다. 선천적 능력이 있으며 결의가 강한 당신, 어떠한 도전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완벽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인지하고, 때에 따라 가끔씩은 타협도 하는 최적주의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어떤 타입이세요?



고개를 낮추고 머리를 마주한 한 쌍의 숫양
한 쌍의 숫양을 보는 당신은, 꾸준한 활동가!

당신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에너지이저입니다. 스스로 훈련을 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박감이나 위협 등을 느낄 때 남들보다 더 예민해 집니다. 걱정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기 주문을 걸며 정신적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활동과 휴식의 조화로운 분배에 신경 쓰세요.



전갈
전갈을 보는 당신은, 예민한 발레리나!

당신의 육체는 체조 선수나 발레리나처럼 조율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체적으로 섬세하고 예민하기에 일상에서 수면이나 소리, 냄새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데에 집중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반신욕을 하거나, 명상 및 호흡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랍스터, 새우, 바닷가재
랍스터, 새우, 바닷가재를 보는 당신은, 배려의 낭만주의자!

당신은 낭만주의자입니다. 현재 상황을 최대한 즐기려 노력하며 마음의 평화를 중요시하죠. 그러나 관계로 인해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듯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자신임을 명심하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팔관 모양
나팔관 모양을 보는 당신은, 잠재력의 도전자!

당신의 잠재력은 대단합니다. 당신도 자신의 잠재력을 알기에 목표한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만큼 큰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과 유머입니다. 긍정적 언어 습관으로 평상심을 유지하고, 유머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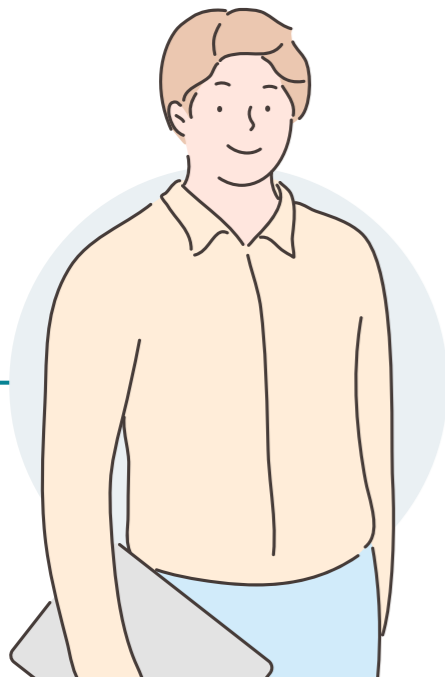
눈을 즐겁게,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목적에 캐치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업무 특성상 고객 및 협력 업체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회의나 어떠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정확히 캐치해야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주변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경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선배에게 제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고 후배 앞에서는 경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창원연구소
연구소 K**



**“상대방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꼼꼼한 업무 처리는 상대방에게 미소를 선사합니다. 하루의 절반을 같이 보내는 동료로서,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친한 형, 동생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저는 일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동료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나 대화 내용을 기억해두고 꼼꼼하게 챙깁니다. 동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부족함은 채우고, 좋은 점은 나누며 시너지를 발생시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죠. 앞으로 세플러코리아가 무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도 매진하고 베어링 관련 자료도 부지런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창원공장
연구소 Y**



**“의견 충돌, 지혜로운 판단으로
눈을 즐겁게 해요!”**

직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감정적 소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리 판단을 통하여 지혜롭게 넘어가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워 다른 동료들의 눈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인사부터 밝게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근면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이루는 것은 회사 생활에서 직원들 간의 조화에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전 조화로운 모습뿐 아니라 내 분야 일에 전문가로서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창원연구소
연구소 L**



**“자연스러움으로
눈을 즐겁게 해요!”**

소나무 숲에는 소나무가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소나무 숲의 소나무처럼 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며 어떤 어려운 업무라도 맡길 수 있는 동료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불평, 불만,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은 버리고 긍정적 말투와 행동을 동료들에게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아울러 타 부서 직원을 우연히 마주칠 때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사람은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인사를 통해 얼굴을 익혀 놓으면 협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목표한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원공장
연구소 C**



마음으로 보는 눈의 언어들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눈과 관련된 지혜와 사랑이 담긴 글귀를 모았다.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맹자

내 비밀은 아주 간단한 거야.
무엇이든 마음으로 보면 가장
잘 보인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도서 '어린 왕자'의 편지 中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판지로
만든 가면일 뿐이야.
지상의 온갖 것에 대한 의심,
천상의 무언가에 대한 직관,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신자도
불신자도 되지 않고, 양쪽을 공평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도서 '모비딕' 中

매일 눈을 뺐을 때
너를 볼 수 있길 바라.

영화 '침묵' 中

눈앞에서 많은 걸 잃는 것보다는 낫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하겠어!

애니메이션 '원피스' 中



사람은 말이야.
99가지 장점 중에 한 가지 단점만 보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온갖 정나미 다 떨어지는 것이고
99가지 단점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머지 1%의 장점이 눈에 띄면
거기에 반하는 거야.
그게 매력인 거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게 그런 1%의 어떤 것이 눈에 띄다면
사랑하게 되는 거야.

도서 '1%의 어떤 것' 中

행복의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친구의 좋은
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中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폴 고크

눈을 뜬 후에도 다들
이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해.
현실의 인생은 게임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걸 말아야.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베이커가의 명령' 中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블리치' 中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도서 '인간의 대지' 中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영화 '카사블랑카' 中

눈에는
눈을 고집한다면
세상의 눈이
멀게 된다.

마하트마 간디

눈은 영혼의
창이다.

영화 '빅 아이' 中

네 눈 밖에서도 엄연히
시간이 흘러갔음을
생각하거라.

도서 '룬의 아이들' 中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 속에 있다.

마거릿 울프 헝거포드

뒤 돌아보지 마, 눈물을 말리는
건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영화 '와니와 준하' 中



눈이 내려요!

분주한 일상, 잠시나마 눈과 마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스노우볼 세트를 임직원에게 선물했다.

투명 볼 안의 세상

투명한 원형 유리 안에 다양한 모형이 흥미로운 스노우볼. 이것을 흔들면 투명한 액체가 출렁이며 작은 입자들이 마치 눈이 내리듯 나부낀다. 글리세린이 물보다 비중과 점도가 높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스노우볼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진다. 특히 여름철 스노우볼은 청량함과 함께 겨울의 정취를 전해 새롭다.

임직원에게 전달된 스노우볼 세트

스노우볼 세트엔 친절한 매뉴얼이 있어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다. LED, 조화,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콘셉트 중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피규어, 글리터, 정제수, 접착제 등이 들어 있다. 완성된 스노우볼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하며, 지인을 위한 가볍지만 의미 있는 선물로도 좋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며
공정기술보배어링 MU
이준호 과장

집에서 사랑하는 큰딸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딸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접착제 등 낯선 재료들이 있어 마음이 조마조마했네요. 산타클로스를 좋아하는 큰딸이 즐거운 표정으로 스노우볼을 만드는 것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아졌어요.



또 하나의 추억
BU 새시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이강현 선임연구원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았고, 설명서대로 따라 하니 어렵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스노우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쏟아진 반짝이
BU 새시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김슬기 선임연구원

16개월 된 우리 아들, 스노우볼에 들어가는 반짝이가 신기했나 봅니다. 잠깐 한눈 판 사이에 투명볼을 흔들어 반짝이가 바닥에 다 쏟아져 애먹었네요. 완성된 작품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들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함께 만들어 봐야겠어요.



깨달음을 준 스노우볼
사업관리 창원공장
정호상 차장

퇴근 후 온 가족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싼 장난감보다 함께 놀아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벨트를 조이며

첫 월급을 받아 자신에게 선물한 벨트,
그리고 그 벨트를 조이며 열심히 달려온 지금까지의 시간들.



세플러와 30년 동행

창원연구소에서 시험평가를 하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박상호 사원입니다. 저는 1991년에 입사했고요, 세플러가 저의 첫 직장입니다. 사실 입사 전부터 세플러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학창시절을 창원에서 보냈는데, 등하곳길 버스에서 세플러 공장이 보여요. 그때마다 저곳은 어떤 곳일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생이 참 드라마틱해요. 20대가 되고 제가 궁금해하던 세플러의 직원이 되다니 말이예요.

세플러에 지인이 아는 분이 계셨고, 그 분이 고맙게도 추천서를 작성해 주셔서 전 창원1공장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03년 창원연구소로 이동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지요. 세플러와의 30년, 그 시작을 도와주신故 조수영 환경안전 실장님을 생각하면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오랜 시간 제가 경험한 세플러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원 모두가 스펀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새로운 도전에 앞장섰어요. 그러한 사내 문화와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세플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 또한 발전해 가는 세플러의 일원으로 작으나마 힘을 보탤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부듯해집니다.



“벨트에
‘내 생애 소중한 벨트’라고
적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나태해진 상태에서
선생님처럼 저를 다잡는 데에
도움을 주었어요. 벨트와 함께 남은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호 사원
시험평가



그때마다 벨트를 졸라매며

첫 월급을 타고 정말 행복하더군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저를 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벨트예요. 당시 창원어시장에서 4,500원을 주고 구입해 2019년까지 사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명품도 아닌 저렴한 벨트이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커요. 배고프고 힘들 때 이 벨트를 졸라매며 다시 열심히 하자며 스스로를 격려했고, 회사 생활이 익숙해져 가끔씩 나태해질 때는 다시 벨트를 졸라매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장에도 저는 이 벨트를 착용하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정말 오랜 친구같은 장신구죠. 하지만 이별의 순간은 예외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동안 동료들은 낡은 벨트를

이제는 좀 바꾸려며 면박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쉽게 떠나 보낼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2019년 아내가 저의 생일을 맞아 새로운 벨트를 선물해주었어요. 그제야 저는 함께한 벨트를 풀어 책상 서랍에 넣을 수 있었어요. 벨트를 보며 당시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내 생애 소중한 벨트’라고 적었고, 퇴직 후에는 액자에 넣어 보관하려 합니다. 하하.

이 낡은 수첩 또한 저에게는 의미가 큰 물건이에요. 2003년 연구소로 오면서부터 사용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1년 주기로 다이어리를 바꾸지만 저는 기존 자료를 들춰보며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정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참고 내용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벨트와 수첩은 세플러에서 저의 시간을 상징하네요. 나를 열심히 달려왔던 저의 길이 담겨 있어요.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미소 지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안전한 세플러

요즘 산업 안전 사고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세플러 가족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까 해요. 회사가 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껏 그랬듯이 세플러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위기를 현명히 극복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안전한 세플러, 미래로 나아가는 세플러를 만들기 위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들의 눈은 공장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살핀다.
적극적 자세와 긍정 마인드로 창원공장을
서포트하는 MP&L팀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성우진 대리, 남진우 대리, 배지훈 부장,
하두호 선임매니저, 박광수 부장

공장 업무의 시작에서 끝까지

MP&L팀(Master Planning & Logistics)은 창원공장의 수급계획과 물류관리를 책임진다. 하두호 팀장과 4명의 팀원이 그야말로 공장 업무의 시작에서 끝까지 지원하는데, 주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영업 관련 요구와 생산의 가교 역할을 하는 Master Planning Function, 생산 물류 프로세스 개선 및 지원을 하는 Plant Logistics Function, 포장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Packaging Function이 그것이다.

Master Planning Function은 생산 및 판매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Plant Logistics Function은 원활한 생산을 위한 부품 공급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부재로 수급 지원과 창고를 관리한다. Packaging Function은 국내외 고객 포장사양 개발 및 포장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업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만큼 팀의 성과 또한 다채롭다. 팀은 공장 생산 및 판매 지표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익숙한 PPT, 엑셀을 버리고 Power-BI Tool을 활용했다. 또한 공장 부품 프로세스에 Milk-Run(볼 부품 공급을 Call-off 방식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 만큼 전산(EP1)으로 요청하면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테이퍼 부품 공급은 KANBAN 방식으로 생산계획 수량만큼 시간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효율성을 강화했고, 강구 부품 공급 시 새로운 운반 수단(Dolley)을 개발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였다. 다소 불편했던 베어링 롤 포장 방식을 개선하여 1개의 박스에 기존보다 두 배 많은 베어링을 포장해 물류 운송비 등도 줄였다.

직접 보고, 직접 실행하다

“저희 팀은 직접 보고, 또 직접 실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이러한 적극성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의 말처럼 팀원 모두 매사 꼼꼼하게 살피며 분주히 움직인다. 팀의 업무는 공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매일 오전 8시 30분 공장 부품 창고를 살피며 부품 관리 상태, 결품 등을 체크하는 SFM(Shop Floor Management) Round를 진행한다. 이후 모든 팀원이 모여 당일의 이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가지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개선점이 발견될 경우 시급성과 실행의 난이도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 작업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영업, Customer Service, SCM, 생산, 구매팀 등 다른 팀들과 소통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팀원들은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도 적극성을 띠고 몰입하는데, 팀장은 팀원들의 이러한 태도가 큰 힘이 된다고 한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에는 직원들이 일을 구분하고 자신의 일 외에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팀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낯선 업무에도 주저 없이 뛰어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고맙고 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더 빨리

주저 없는 팀원들의 적극적 자세와 긍정적 마인드, 이는 포장 사양 개선 시에도 빛을 발했다. 언젠가 다양한 종류의 포장 사양을 단시간에 개선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패키징 담당 팀원 혼자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때 다른 팀원이 함께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며 담당 팀원을 다독이며 힘을 보탤다. 먼지 가득한 물류센터 한편에서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고, 마침 내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0만 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창원공장의 서포터

팀은 현재 공장 생산활동 혁신을 위해 2021년 Priority Project를 선정하여 관련 부서와 Integration Project Management를 추진 중이다. 팀장은 팀의 역할이 ‘창원공장의 Support Function’이라고 강조하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상 고민을 이어간다고 한다.

“다른 팀이 성과를 올리면 자연스레 저희 팀의 성과도 드러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원공장의 발전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저희 팀 많이 격려하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눈에 비친 서로의 모습

eye



→
눈 하면 하두호 팀장님이죠. 멋진 쌍꺼풀을 가지고 있으시고, 눈웃음이 매력적이세요.
남진우 대리



←
남진우 대리는 우리 팀에서 가장 눈이 아름다워요. 가장 크며 깊습니다.
하두호 선임매니저

contact



→
박광수 부장님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공장의 모든 부서와 조율하시는 모습이 멋지세요.
성우진 대리



↑
성우진 대리는 첫인상이 정말 좋아요. 통통한 귤볼과 듬직한 체형을 가졌거든요.
배지훈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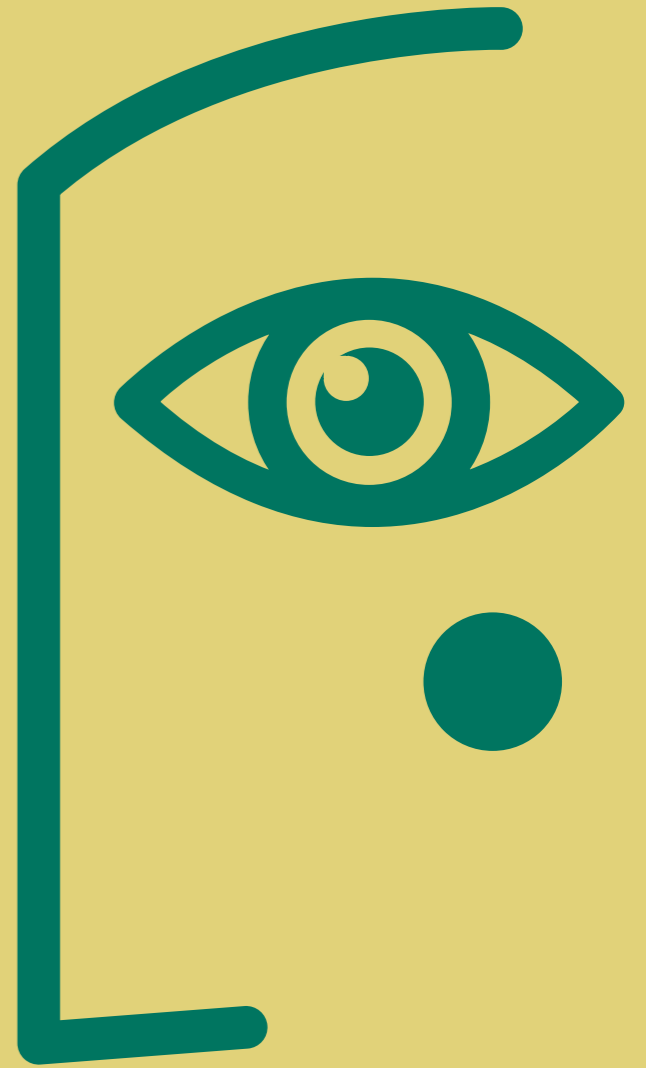
←
배지훈 부장님은 매력적인 눈썹을 가지셨어요. 딱 보면 상남자인데, 조언해주는 모습을 보면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박광수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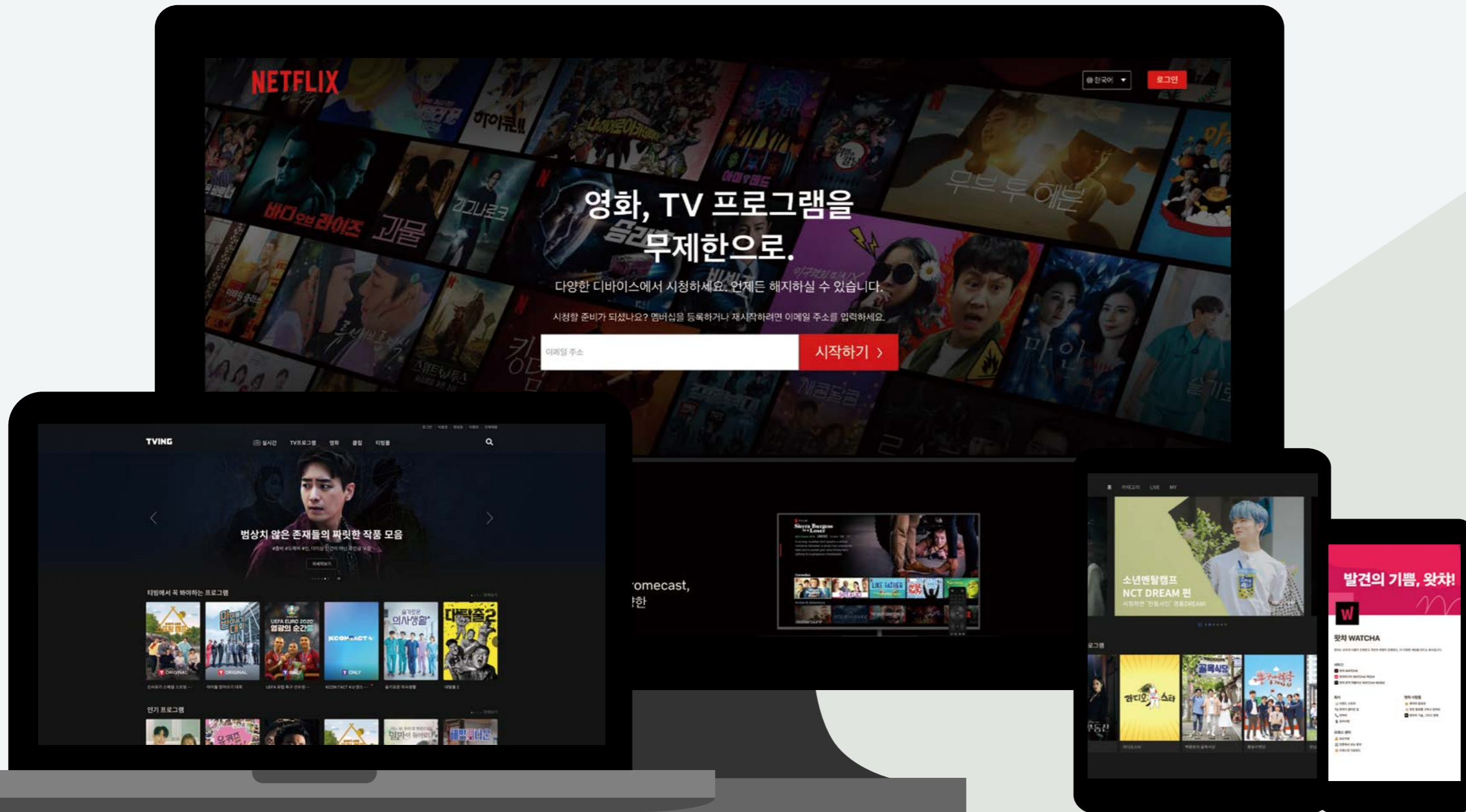


일상의 행복이 보이시나요?
눈을 뜨면 마주하는 가족의 얼굴들,
투명한 하늘과 짙푸른 나무들,
익숙한 풍경과 새로운 풍경들,
오늘 하루 눈을 채우는 모든 것이
그저 행복일 뿐입니다.



Rest
Info





언제, 어디서든 OTT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칭한다.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YouTube)와 넷플릭스(Netflix)다.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최근 OTT 산업이 급성장하였고, 여러 장점을 강화하며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OTT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톱박스 등의 번거로운 장치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이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되었고, 통신 환경에 맞춰 화질을 조절하는 기술도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다양한 서비스의 각축전

국내에도 여러 OTT 서비스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 서비스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률이 유튜브가 62.3%로 압도적이며, 넷플릭스가 16.3%로 뒤를 이었다. 거대 공용 유튜브는 구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및 호스팅 사이트다.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의 다양한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으며,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유료 이용자들에게는 드라마 <오리진>, <코브라 카이> 등의 콘텐츠도 제공한다. 혁신의 넷플릭스는 다양하며 흥미로운 콘텐츠로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2017년 국내 넷플릭스 첫 오리지널 영화 <옥자>를 선보인 뒤 한국형 좀비물 <킹덤>, 웹툰 원작 <스위트홈> 등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영상, 어떤 앱으로 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는 OTT 서비스의 오늘과 내일을 짚어봤다.

국내 OTT 서비스들의 경쟁도 뜨겁다. 대표적으로 웨이브(wavve), 왓챠(WATCHA), 티빙(TVING)을 꼽을 수 있으며, 각자의 특색을 드러내며 이용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웨이브는 SK텔레콤과 국내 지상파 3사(KBS·MBC·SBS)가 합심해 만든 서비스다.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 케이블 채널, 영화사, 해외 메이저 스튜디오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약 30만 편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자체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왓챠는 이용자가 영화나 드라마를 평가하면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 감상 패턴과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 콘텐츠를 추천한다. 또한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 없는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 미국 케이블 채널 HBO 755여 편의 콘텐츠도 감상할 수 있다. 티빙은 특히 흥미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호 트렌드를 고려한 참신한 콘텐츠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뉴페이스의 진입

앞으로 국내 OTT 시장은 더 커질 것이며 뉴페이스의 진입으로 경쟁은 더 뜨겁고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선 해외 서비스로 아이치이(iQiyi), 애플(apple), 디즈니(Disney)가 출사표를 던졌다. 중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아이치이는 <별에서 온 그대>, <편의점 셋별이>, <저녁 같이 드실래요> 등 30여 편의 한국 드라마 판권을 사들이며 시장 장악을 준비 중이다. 애플이 제작한 애플TV+는 오리지널 한국 콘텐츠 제작 계획을 발표하고 SK텔레콤과 콘텐츠 제휴 논의를 진행하는 등 국내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한국 진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월트디즈니의 디즈니+는 픽사의 애니메이션, <어벤져스> 시리즈로 유명한 마블스튜디오, <스타워즈> 시리즈를 내세우며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쿠팡(cupang)과 카카오(kakao)가 시장에 뛰어들었다. 쿠팡은 쿠팡플레이를 선보이고 기존 로켓와우 회원에게 추가 금액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메신저로 유명한 카카오는 카카오TV를 론칭하고, 10~20분 내외로 구성된 콘텐츠로 유튜브 감성에 익숙한 젊은층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세플러 가족의 '눈' 관련 요즘 취향



백상하 대리
폴리머&운할기술

1. 공연의 즐거움, <티키타카>

최근 웨이브를 접하게 되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공중파 채널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드라마나 예능의 본 방송 시간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졌네요. 여가 시간에 <티키타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해 보세요. 유명 가수들을 섭외해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연이 취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 간접적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천윤성 대리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획

2. 현실 느와르, <낙원의 밤>

저는 넷플릭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월 결제로 모든 항목들을 무료 감상할 수 있고, 요금제에 따라 자신을 포함 5명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전용 영화나 드라마도 있고요. 그중 <낙원의 밤>을 추천합니다! 다소 잔인한 장면도 많지만, 제가 보았던 느와르 영화 중 현실감이 제법 많이 느껴지고 몰입도 잘되는 영화입니다! 느와르와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빼놓지 마세요!



김수연 선임연구원
재료기술

3. SF 드라마의 백미, <OA>

넷플릭스,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좋아하는 콘텐츠를 장르별로 검색하여 볼 수 있거든요. SF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의 <OA>, <Narcos>, <Dark>를 추천합니다. <OA>는 Near Death Experience(임사 체험)에 대한 SF 드라마로 차원이동 등 공상과학 소재에 관심이 많다면 볼만하고, <Narcos>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남미 지역 마약 관련 드라마입니다. 아울러 시간 여행을 좋아하시면 <Dark>를 추천합니다!



방민석 과장
툴센터

4. 흥미로운 사물의 기원, <조승연의 탐구생활>

OTT 하면 유튜브가 아닐까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죠. 특히 요즘은 TV와 연동해 홈트레이닝도 하고, 영상도 볼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커졌습니다. Killing Time용으로 좋고 1990~2000년대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추억을 떠올리며 즐기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이나 문화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유익한 채널이에요.

“OTT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1



2



3



4



1



서체 먼저 정하세요!

보고서의 형식에 따라 효과적인 글꼴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고딕체는 가시성이 뛰어나 PPT 작업(제목 등)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명조체는 가독성이 좋아 많은 페이지의 보고서 작성에 용이하다. 하나의 보고서에 다수의 글꼴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어지럽고 집중을 방해하니 참고하자.

2



초고를 쓰세요!

본 작업을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부담 없이 초안을 먼저 작성해보자. 초고에는 많은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고, 내용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본이 된다. 분량이 많다면 퇴고 시 줄이고, 내용의 흐름은 결론을 전진 배치하도록 하자. 결론 > 이유 > 경과 > 소건의 순서로 흐름을 잡되 간결한 문장을 유지하고 적절한 자료를 보여주자.

3



어려운 단어는 빼세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 이것이 보고서의 본질이다. 따라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면 쉬운 말로 풀어 쓰도록 하자.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 설명을 해야 하며 자칫 장황해지기 쉽다. 한자 표현도 피하는 것이 좋다. 한자를 사용하면 문장이 짧더라도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진다. 가장 쉽고 편한 어휘를 찾아 핵심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자.

보고서와 맞춤법

결재와 결제

기획안을 상사에게 올릴 때는 '결재해주세요'라고 하고, 물건을 계산할 때는 '제가 결제할게요'라고 한다. '결재'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뜻하고, '결제'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행위를 의미한다.

협의와 합의

안건을 논의 중일 때는 '프로젝트 진행 비용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고, 확정되었을 때는 '프로젝트 진행 비용을 합의했다'라고 한다. '협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을 뜻하고, '합의'는 서로의 의견 일치를 뜻한다.

개발과 개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는 '자기 개발하려고', '자기 개발하려고',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할 때는 '토지를 개발 중'이라고 한다. '개발'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준다는 뜻이고, '개발'은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들거나,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한다는 뜻이다.

로서와 로써

자신의 직위를 이야기할 때는 '팀장으로서'라고 하며, 수단을 이야기할 때는 '준비함으로써'라고 한다. '로서'는 자격, 신분 등을 나타낼 때를 뜻하고 '로써'는 근거, 수단을 뜻한다.



보고서, 이렇게 쓰세요!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쉽고 강력한 보고서의 법칙을 소개한다.

5



숫자를 유념해서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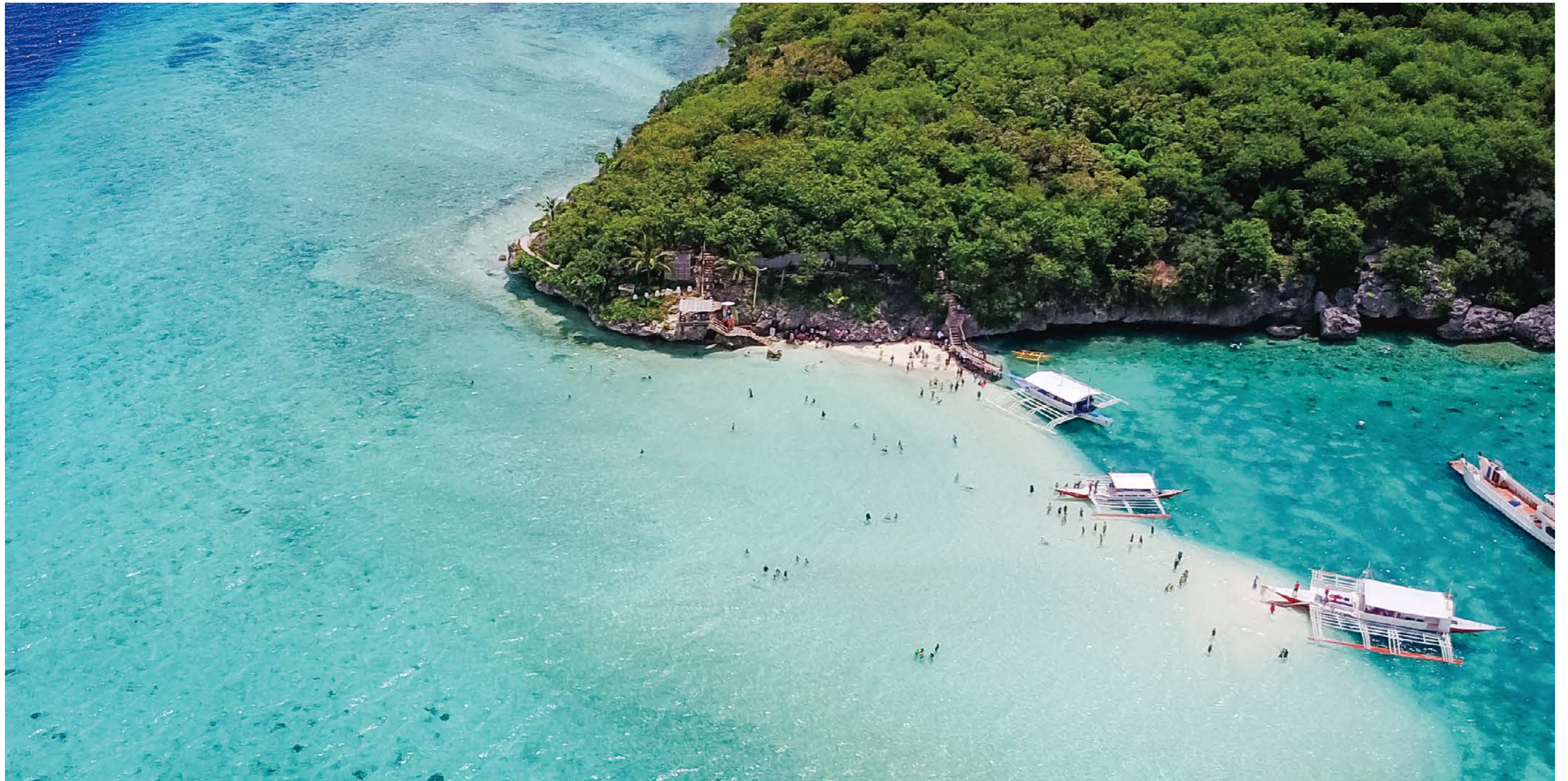
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오타를 체크하자. 받침 하나, 문장 부호 하나가 보고서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특히 숫자 등은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는 익숙해지기에 타인에게 검토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눈으로만 흘려 보는 것보다는 펜이나 손가락으로 문장들을 짚어가며 확인하자.

4

What
Why
How
so What

3W1H 법칙으로 풀어가세요!

정리가 아닌 반복은 보고서의 흥미도를 저하시킨다. '즉', '다시 말해서' 등의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풀어갈 때 3W1H(What, Why, How, so What) 법칙을 따르도록 하자. 보고의 주제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때 보고서의 전달력이 높아진다.



즉흥적으로,
세부로

동료와 무심코 대화를 나누다 즉흥적으로
세부 여행을 떠난 세플러 가족의 즐거운 여행기.

“즉흥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티켓을 끊고 여행을
갔다 왔음에도 생각보다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거침없는 여행

반갑습니다. 저는 재료기술팀 강민욱 선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소개할 여행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필리핀의 아름다운 섬 '세부'입니다. 당시 휴가철이 다가왔는데, 저는 딱히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특별한 계획 없으면 세부나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날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세부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욱 선임연구원
재료기술

액티비티와 호캉스의 천국

세부는 그야말로 액티비티의 천국이더군요.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수상오토바이도 몰아볼 수 있어요.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세부에 꼭 한번 가보세요. 에메랄드 빛 바다가 투명하게 펼쳐져 있는데,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물론 스쿠버다이빙도 가능해요. 저희는 바닷속에서

사진도 찍었는데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어요. 세부는 호캉스를 즐기기에 최적의 여행지입니다. 한가로운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수영도 즐길 수 있어요. 저희는 세부에서 조금 들어가면 있는 보홀이라는 곳에서 호캉스를 했어요. 하루 숙박하고 돌아오는데 기상 악화로 배가 운항을 멈춰버렸지 뭐예요. 부랴부랴 일정을 조정하고, 여객터미널 근처 가까운 숙소를 잡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해 흑등고래와 수영을 할 수 있는 오슬롭을 방문하지 못한 게 아직도 아쉽네요.

돼지 통구이, 레촌

필리핀을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의 많은 레촌 음식점을 볼 수 있어요. 레촌은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끼워 통구이 바비큐를 만드는 필리핀 전통 음식인데, 걸바속축의 대표 메뉴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필리핀 세부에 가시면 레촌을 반드시 드셔보세요.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상상 이상입니다.

즉흥 여행의 행복

여행이란 갈 수 있을 때 많이 갈 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티켓을 끊고 여행을 갔다 왔음에도 생각보다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요즘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어려운데,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서 필리핀도 다시 가고, 다양한 일들을 맘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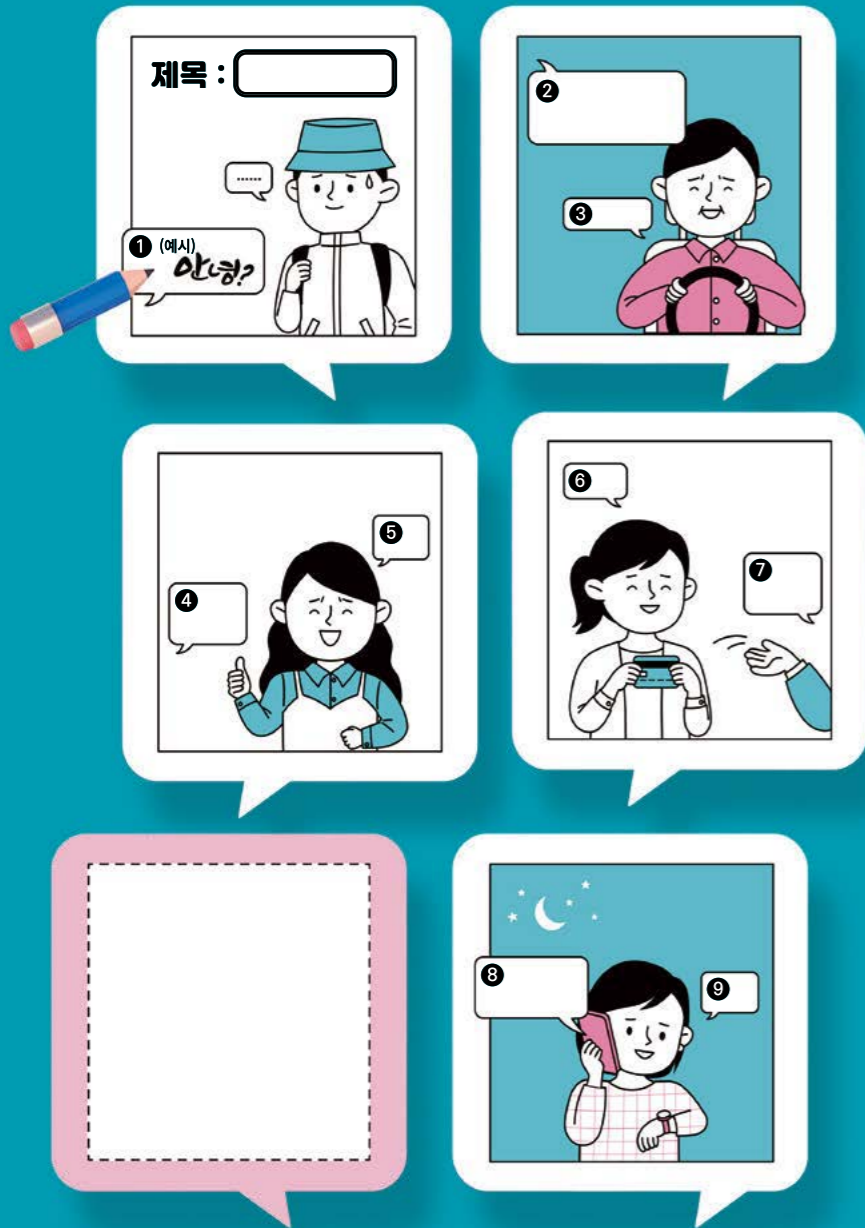


- 1 보홀 스쿠버다이빙 스팟에서 김수연 선임연구원, 강민욱 선임연구원
- 2 막탄섬에서 패러글라이딩
- 3 세부 하우스 오프 레촌에서 먹은 현지음식 레촌

Cebu
Island

말풍선에 담긴 상상력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의 풍부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었던 말풍선 채우기 대회. 손수 그림을 그린 최우수상부터 영업사원의 하루를 보여준 참가상까지, 임직원의 다양한 상상력을 소개합니다.



〈세플러+원〉은 2021년 Winter호를 통해 임직원 및 가족에게 6컷 만화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응모해주셨고, 올 한 해 동안 수상작 및 훌륭한 작품들을 사보에서 소개합니다.

수상자 안내

최우수상

안산 엔진컴포넌트 BU 엔지니어링
김성완 수석연구원 자녀 김효원

우수상

서울 새시시스템 BD 영업 민광운 차장
연구소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국내 엔지니어링 하병훈 과장 조카 방솔희

장려상

안산 설비보전 유갑수 과장 자녀 유혜인
서울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이겨레 과장
창원 톨센터 백명곤 사원 자녀 백민지

크리에이티브상

연구소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해외 엔지니어링 이석훈 부장 자녀 이영서



우수상



민광운 차장
서울 새시시스템
BD 영업

“세플러와 고정된 생각”

세플러와 연관 지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정된 생각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 예전 학교 다닐 때 글짓기 생각도 나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세플러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장려상**

백민지
창원 톨센터
백명곤 사원 자녀

“함께 이겨내는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일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함께 이겨나가자는 의도로 제작했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제 작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상**

김영애
서울 Channel
Management
최찬길 과장 어머니

“하얀 거짓말”

거짓말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하얀 거짓말도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말풍선을 작성했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예요. 이 만화를 보신 세플러 임직원 여러분, 가족에게 안부전화 한 통 어떨까요?

뉴스 하이라이트

세플러코리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세플러+원>에서 세플러코리아의 소식을 모아 소개합니다.



세플러코리아, 자동차 애프터마켓 브랜드 '트루파워(Trupower)' 부동액 2종 출시

6월 9일 세플러코리아는 세플러그룹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브랜드 '트루파워(Trupower)'의 신제품 부동액 2종을 출시했다. 트루파워 부동액은 '레드'와 '블루' 2종으로 용량은 2L, 3L, 2가지로 구성됐으며 냉각은 물론 덥거나 추운 날씨 등 여러 기후 변화에서도 원활한 엔진 작동을 도와준다. 금속으로 된 엔진 내부와 부품의 부식을 막기 위해 첨가제 등이 혼합돼 있어 주요 부품의 수명에도 도움을 준다. 이병찬 대표는 "세플러는 자동차용 엔진 냉각 시스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와 엔진에 적합한 부동액(냉각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내 시장에 첫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플러코리아는 트루파워 부동액을 자동차 애프터마켓(AAM)전문 대리점 중 하나인 '전우APS'를 통해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향후 유통망 확대를 통해 기존 자동차 및 전기차 시장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플러 자동차 애프터마켓 브랜드 '트루파워' 신제품 부동액 2종



안산공장과 창원공장, Fit for Quality Awards에서 각각 은상과 동상 수상

안산공장과 창원공장이 'Fit for Quality Awards'에서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Fit for Quality Awards는 세플러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 zero-defect를 실현한 공장에게 상을 수여한다. 그룹 내 18개의 세그먼트가 12개월간 무결점을 지속하여 동상을, 9개의 세그먼트가 24개월간 무결점을 유지하여 은상을, 3개의 세그먼트가 48개월 이상 지속한 끝에 금상을 수상했다. 안산공장과 창원공장은 아시아 퍼시픽 내에서 유일하게 수상한 공장이다. AP Quality 총괄인 프랭크 슐츠는 "안산공장은 2년간, 창원공장은 1년간 고객 불만 제로를 달성하여, 세플러 품질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금번 수상을 통해 그들이 우수한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오늘날과 같이 도전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 중심이라는 마인드를 통해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둔 안산공장과 창원공장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에버그린 8기 행복주머니 만들기



네이버 포스트 바로 가기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9기' 모집

세플러코리아가 대학생봉사단 에버그린 9기를 모집한다. 서울지역 활동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 희망자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세플러코리아 공식 네이버 포스트(https://post.naver.com/schaeffler_korea/ QR코드)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13년 첫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9회 째인 에버그린 봉사단은 그동안 220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총 76차례 584시간에 걸쳐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천하면서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를 지원해 왔다. 갈수록 대학생들의 참여 의식도 높아져 지난해 8기 모집에는 약 2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안산공장, 2021 비대면 체육대회 개최

건강한 신체와 마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준비물이다. 세플러코리아 안산공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약 한 달 반에 걸쳐 비대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신체 활동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류가 어려워진 안산공장 임직원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비대면 체육대회는 크게 스포츠(축구, 농구, 배드민턴, 자유 종목), 헬스(줄넘기, 철봉, 플랭크), 레저(등산, 자전거, 만보기) 부문 아래 총 10개의 종목으로 진행됐다. 임직원은 1인당 1개 종목을 선정하여 동영상 촬영 및 운영팀에서 지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체육대회에 지원했다. 200여 명이 본 행사에 참여했으며 건강 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든 직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Thanks & Quiz

기자단

사보기자단

- 서울 박지수 대리, 김유정 대리
- 창원 기대환 부장, 손강우 사원
- 안산 정배근 대리
- 전주 최규철 사원
- 연구소 김현용 선임연구원

사보담당자

-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 민유정 차장, 주윤선 대리

지난호 당첨자 명단

퀴즈

- 서울 이현준 (이선종 부장 자녀), 김성만 (Global Technology Service)
- 전주 조완신 (공장구매), 이영재 (볼세그먼트)
- 창원 신승수 (테이퍼베어링 열처리), 최강용 (설비보전), 정미란 (신한베어링)

숨은 캐릭터 찾기

- 전주 김선아 사원 (전주물류), 이병렬 과장 (볼세그먼트)
- 안성 황장호 부장 (안성물류)
- 안산 최승연 (최춘현 대리 자녀)

독자의견

- 창원 장영진 배우자 (단조 세그먼트)

사보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1

〈반짝반짝 빛나는〉에 소개된 MP&L팀의 풀 네임은? MP&L 팀은 창원공장의 수급계획과 물류관리를 책임지고 있어요.

퀴즈 2 - 창의력 테스트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된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도 다양한 창의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보를 통해 창의력도 키우고 상품도 받아볼까요? 아래 문제의 정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옷에 뚫린 구멍은 모두 몇 개일까?



참여방법



jooyun@schaeffler.com

보내실 때

코너제목/ 이름/ 소속/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응모 마감

8월 30일까지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문자보내기로 보내주세요.

* 문자보내기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담당자 메일을 넣어 전송 끝.

